

<http://dx.doi.org/10.20880/kler.2016.51.3.155>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이관규 고려대학교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차 국제학술대회(2016년 6월 22~25일, 체코 카렐대학)에
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언어사상적 성격
- III.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배열과 내용
- IV.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와 문법 내용
- V. 맺음말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민족은 하나의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한다.¹ 전통적으로 한민족은 교육에 우선 가치를 두어 왔으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 그 중에서도 언어 교육에 힘을 쏟아 왔다. 개화기 이후 말과 글에 대한 교육은 중요시 되어 왔으며 일제 강점기를 지나 남북한 분단 시기에도 비록 정치 체제는 다르지만 청소년에 대한 언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한국어 교육을 공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곳은 크게 보아, 남한, 북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곳은 남한에서는 한국어, 북한과 중국에서는 조선어라고 부르는 언어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갖고 있고 또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특성을 다룬 문법 교과서가 이들 세 곳에서 만들어져서 중등학교에서 사용되어 왔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문법 교과서를 보면 남북한과 중국에서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

¹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한국어, 북한과 중국에서는 조선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물론 문법 교과서 속에 나타나 있는 문법 내용들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의식 차이도 알 수가 있다. 이는 결국 동질성 회복의 일환을 살피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인식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교과서들의 단원 배열, 구성 체제, 내용에 대하여 비교 대조해서, 통일 문법 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²

2. 비교 대상과 한계점

2016년 현재 남한에서는 ‘독서와 문법’, 북한에서는 ‘국어문법(1~3)’, 중국에서는 ‘조선어문 문법’이라는 명칭으로 문법 교과서가 중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남한과 중국은 고등학교에서 문법 교과서를 다루고 북한에서는 중학교에서 다뤄서 차이가 있지만, 중등학교라는 점에서 보면 서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고등중학교 1~3학년, 즉 중학교 과정에서 ‘국어문법 1~3’을 필수과목으로 다루고 있고, 중국은 ‘조선어문 문법’을 고급중학교, 즉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남한은 ‘독서와 문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시 선택과목으로 다루고 있다.³ 북한은 교육도서출판사, 중국은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나온 문법 교과서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한은 6개 출판사가 서로 다른 교과서를 내어, 즉 검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한계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는 북한에서 출판된 교과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2001년에 나온 ‘국어문법 1~3’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최근 2013년 북한에서 나온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는 출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2 본고에서는 남한, 북한, 중국의 문법 교과서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중국’이라 하면 ‘중국조선족’을 뜻한다.

3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치면 고등학교에서 ‘국어문학 1~3’을 공부하고 중학교 때 ‘국어 1~3’과 ‘국어문법 1~3’을 교수 학습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현재 문법 교과서를 정확히 이것이라 고 확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2001년 ‘국어문법’이 협행 문 법 교과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북한의 문법 교과서는 2001년 ‘국어문법 1~3’으로 하기로 한다.

두 번째 한계로는 남한 문법 교과서의 경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들은 2014년에 나온 검인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이어서 각 교과 서마다 구성 체제가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남한 문법 교과서로는 2002년에 나온 마지막 국정 문법 교과 서인 ‘고등학교 문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세부 문법 내용적인 면에 서 보면 협행 6권 검정 교과서는 결국 2002년 문법 교과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세 번째 한계로는 문법 과목이 북한에서는 필수 과목이지만, 남한과 중국에서는 선택과목이라는 점이다. 연변출판사에서 ‘조선어문 문법’ 교과서가 나왔고, 남한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한 권으로 나왔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용의 필연성 문제를 차치하고, 간행된 문법 교과 서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 대조해 보도록 한다.

II.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사상적 성격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갖고 언어사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언어 사고 도구관, 언어 사고 일체관, 언어 사고 형성 관이 그것이다(김민수, 1985 참조). 이것들은 간단히 각각 언어 도구 관, 일체관, 형성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도구관은 언어가 사고의 도

4 남한의 2016년 협행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구성 체제가 2002년 것에 비하여 더욱 다양화 및 체계화 된 것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비슷한 시기의 남북한 것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구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일체관은 언어와 사고를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며, 형성관은 언어에 막강한 힘을 부여하여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1) 각국의 언어사상적 성격

- ㄱ. ○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쓸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5 국어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

-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 학습자는 국어를 활용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세계를 이해한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총론>

- ㄴ. 우리 民族이 自己의 固有한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며 커다란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 나라의 經濟와 文化, 科學과 技術의 發展에서 社會主義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힘있는 武器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1964, ‘朝鮮語를 發展시키기 위한 몇가지 問題’>

- ㄷ. 어문은 가장 중요한 교재도구이고 인류문화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도구성과 인문성의 통일은 어문과정의 기본특징이다.

조선어문화는 우리 민족의 삶이 배여있는 조선 말과 글을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사회에서 조선어문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고 옮바른 민족의식과 건전한 공민정서를 함양하며 민족문화를 이어가려는 뜻을 갖게 하는 학과목이다.

<료녕성교육청 외, 2016, 조선어문과정표준, ‘1. 서언’>

일반적으로 남한은 (1ㄱ)에서 보듯이 도구관과 일체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어라는 명칭으로 과목을 설정한 데서부터 일체관 성격을 확인할 수 있고, 국어를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도구관 성격도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1ㄴ) 김일성의 담화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형성관의 성격을 많이 보인다. 말과 글이 모든 분야에서 힘 있는 무기로 되고 있다는 김일성의 담화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 국어 과목의 가치를 무척 중요시하여

국가와 민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국어를 들고 있는 데서 일체관의 성격도 확인해 볼 수 있다(이판규, 2016년 참조).

한편 중국조선족은 조선어 과목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에서는 국어, 국가, 민족 이 세 가지를 등가로 놓고 봄에 비해서, 중국조선족은 조선어와 조선민족이라는 점에서 국어가 아닌 소수 민족어로서의 조선어 관련 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바라보아야 한다. 문법책 이름도 ‘조선어문 문법’이다. (12)에서 보듯이 어문, 즉 말과 글이 중요한 교재도구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언어 도구관 입장을 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민족의 삶이 배여있는 조선 말과 글”이라는 표현이나 “조선어문과는 ... 옳바른 민족의식과 건전한 공민정서를 함양하며 민족문화를 이어가려는 뜻을 갖게 하는 학과목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언어 일체관 성격과 함께 언어 형성관 성격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다.

(2)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사상

ㄱ. 우리가 ‘국어’ 과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우리말로 활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 하나이며, 우리말로 된 문학 작품들의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고 그 언어 문학적 가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국어 과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 더 있다. 우리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말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들은 우리말을 직접 다루어 보는 경험을 쌓음으로써,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남한, ‘고등학교 문법’의 ‘일러두기’>

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지켜 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 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들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어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것의 하나로 되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모국어말살정책을 강요했다.>>

<북한, ‘고등중학교 국어문법2’의 ‘1. 우리 말 문화어의 억센 뿌리’>
ㄷ. 언어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마찬 가지로 조선어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 민족을 더욱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을 담합시키는 힘을 지니고있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 내부에서 같은 말을 쓸 때 그 구성원들은 더 쉽게 뭉쳐질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요모조모로 깊이있게 생각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특별히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말을 사랑하는 태도가 저절로 생기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태도는 경험을 통한 깊은 관심이 없이 단순히 당위성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족마다 자신의 언어를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고있는것은 바로 언어가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중국조선족, ‘조선어문 문법’의 머리말 ‘학생친구들에게’>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에 반영된 언어사상적 성격도 도구관, 일체관, 형성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2ㄱ)에서 보듯이 남한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도구관과 일체관 성격을 볼 수 있다. “우리말로 활동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과목의 목표를 통해서 도구관 입장을 엿볼 수 있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말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서 일체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언어는 민족을 특징 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들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라는 김일성 교시를 통하여 언어 일체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나아가 “민족어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것의 하나로 되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모국어말살정책을 강요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서 언어 형성관적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ㄴ).

한편 국가어 차원에서 한국어를 다룰 수 없는 중국조선족 입장에서는 함부로 도구관이나 형성관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도

적으로 언어 일체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ㄷ)에서 보듯이 “조선어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 민족을 더욱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하긴 “언어는 사람들을 담합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 내부에서 같은 말을 쓸 때 그 구성원들은 더 쉽게 뭉쳐질수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보면 언어 형성관 성격도 엿볼 수 있긴 하다. 결국 중국은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목 및 교과서에서의 언어관도 어느 정도는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남한과 북한과 중국 모두 한민족 차원에서 모어 과목 및 모어 문법 교과서에 투영된 공통된 언어관은 일체관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국어를 반영하여 도구관 성격도 많이 보여 주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북한은 주체 언어 이론 차원에서 언어 형성관이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도 민족어로서 조선어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언어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하튼 남북한이나 중국조선족이나 모두 모어 과목에서 언어와 사고를 일체시키는 일체관 입장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배열과 내용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문법 교과서는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먼저 세 교과서에서 보이는 내용을 전체 단원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은 각국의 문법 교과서의 단원 내용을 차례로 제시한 것이다.

(3)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차례

남한	북한			중국조선족
	국어문법1	국어문법2	국어문법3	
1. 언어와 국어 1. 언어의 본질 2. 언어와 인간 3. 국어와 한글 2. 말소리 1. 음운과 음운 체계 2. 음운의 변동 3. 단어 1. 단어의 형성 2. 품사 4. 어휘 1. 어휘의 세계 2. 어휘의 양상 5.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쓰임 3. 문법 요소 6. 의미 1. 언어와 의미 2. 단어 간의 의미 관계 7. 이야기 1. 이야기의 개념 2. 이야기의 요소 3. 이야기의 짜임 8. 국어의 규범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2. 한글 맞춤법 3. 외래어 표기법 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자랑스러운 우리 말 2. 단어와 그 뜻 3.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뜻같은말, 반대 말, 소리같은말 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6. 문화어어휘와 사투리어휘 7. 모음과 자음 8. 단어의 발음법에 어떤것이 있는가 9. 단어의 발음법에 어떤것이 있는가 10. 품사란 무엇이 며 품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1. 토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구실을 하는가 12. 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3. 토를 가려내는 방법 14. 격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맷음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6. 이음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7. 문장이란 무엇인가 18. 맞춤법과 그 기본원칙 19. 맞춤법의 주요 규칙들 20. 띠여쓰기와 그 원칙 21. 띠여쓰기의 주	1. 우리 말 문화어의 억센 뿌리 2. 말뿌리와 합친말 3. 앞붙이와 합친말 4.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5. 소리닭기와 <지, 치>로 되기 6. 소리끼우기와 소리비지기 7. 된소리되기와 거센소리되기 8.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떤 점을 잘 지켜야 하는가 9. 원전명사와 불완전명사 10. 수량수사와 순서수사 11. 사람대명사, 가리김대명사, 물음대명사 12. 자립동사와 보조동사 13.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다른가 14. 관형사와 앞붙이는 어떻게 다른가 15. 관형사와 부사는 어떻게 다른가 16. 도움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7. 존경토, 복수토, 시간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8. 규정토와 상황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9. 상토와 바꿈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20. 알림문, 물음문,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원수님의 품속에서 꽃, 펴난 우리 말 문화어 2. 소리닭기와 <지, 치>로 되기 3. 성구와 속담 4. 문화어사전을 보는 방법 5. 문장에서의 높낮이선 6. 문장에서의 끊기와 말의 속도 7. 문장의 소리미루와 소리빛갈 8. 토의 바로 쓰기 9. 주어와 술어 10. 보어, 상황어, 규정어 11. 부름말, 느낌말, 기운말, 이름말, 내세움말 12. 문장안에서의 단이나 표현들의 어울림 13. 문장성분의 차례 14. 뒤붙이 <이>와 <히>는 어떻게 같다 15.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말과 <네>가 들어 간 말은 어떻게 적는가 16. 받침단어들은 어떻게 적는가 17. 이음표, 밀점, 물결표, 같은표, 습김표는 어떤 때 치는가 18. 표현수법이란	제1장 조선어의 기능과 특성 1. 어음적특성 2. 어휘적특성 3. 문법적특성 제2장 어음 제1절 어음의 분류 제2절 음절 제3절 어음의 변화 제3장 품사 제1절 품사의 분류 제2절 체언 제3절 용언 제4절 수식언 제5절 독립언 제4장 토 제1절 토의 개념과 그 분류 제2절 체언토들의 의미와 쓰임 제3절 용언토들의 의미와 쓰임 제5장 문장 제1절 문장과 그 표식 제2절 단어결합 제3절 문장성분 제4절 문장의 분류 제6장 어휘 제1절 단어와 그 구성 제2절 단어의 의미와 그 관계 제3절 어휘의 관계 제4절 어휘의 양상 제7장 문체 제1절 문체의 이해 제2절 문제론적수법 제3절 수시법의 실현 제4절 문체의 류형
■부록 1. 국어의 옛모습 2. 국어의 변화				

	<p>요 규칙들</p> <p>22. 명사는 어떻게 띄여 쓰는가</p> <p>23. 수사와 대명사는 어떻게 띄여 쓰는가</p> <p>24. 문장부호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치는가</p> <p>25. 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인용 표는 어떤 때 치는가</p> <p>26. 소리가 달라 진 말과 받침이 달라 지는 말은 어떻게 적는가</p> <p>27. 울림소리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으며 <ㅅ> 받침은 어떤 때 쓰는가</p> <p>28.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띄여 쓰는가</p> <p>29. 관형사, 부사, 감동사는 어떻게 띄여 쓰는가</p> <p>30. 거듭인용표, 줄임표, 풀이표, 괄호, 꺾쇠괄호, 두 점, 반두점은 어떤 때 치는가</p>	<p>시kip문, 추김문, 느낌문이란 어떤 문장인가</p> <p>21. 문장성분이란 무엇이며 문장성 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p> <p>22. 단일문과 복합 문이란 어떤 문장 인가</p> <p>23. 합친말과 줄어 든말은 어떻게 적는가</p> <p>24. 뒤붙이 <이>가 붙어 만들어 진 본딴말은 어떻게 적는가</p> <p>25. 자리바꿈법과 내세움법</p> <p>26. 물음법과 느낌 법</p>	<p>무엇이며 요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p> <p>19. 직유법과 은유 법</p> <p>20. 의인법과 야유 법</p> <p>21. 과장법과 되풀 이법</p> <p>22. 대구법과 대조 법</p> <p>23. 벌림법과 점총 법</p> <p>24. 뒤붙이 <이>가 붙어 만들어 진 본딴말은 어떻게 적는가</p> <p>25. 물음법과 느낌 법</p>
--	--	---	--

첫째, 남한과 중국은 범주별로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동일한 범주의 내용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⁵ 모두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곧 내용 전달에만 치중하

⁵ 북한의 ‘국어문법’에서는 1~4단원 뒤에 ‘련습’이라 하여 몇 개 단원씩 묶어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역시 병렬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남한이나 중국에서처럼 체계적으로 범주화한 것과는 다르다.

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그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남한과 북한은 어문 규정 내용을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면 중국조선족들은 어문 규정 내용을 교수 학습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 중국조선족들도 자체 ‘조선말규범집’(2007)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어 수업 시간에 적극 다루고 있다고 보이며, 단지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⁶

셋째, 북한과 중국은 문법 교과서에서 ‘문체’를 다루고 있으나 남한은 다루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수사법과 같은 ‘문체’를 문학 과목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남한 국어교육학계에서 소위 ‘수사학적 문법’이라 하여 다양한 장르 문체를 교수 학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병철, 2011; 제민경, 2016 참조).

넷째, 남한에서는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과 중국에서 다루는 ‘문체’가 담화를 다루는 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루는 내용에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 대체는 하기 어렵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옛말 내용을 부록으로 다루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과 중국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⁷ 국어 능력 신장이 국어 교육의 목표이고 국어 문법 능력 신장이 문법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옛말을 본격적으로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섯째, 북한과 중국에서는 ‘토’를 따로 교육 내용으로 빼내서 중요

6 ‘조선말규범집’에 대해서는 이관규(2016)을 참조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朝鮮語文’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면 ‘중국, 조선, 한국의 문법에서의 차이점 비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문 규정도 조선어 수업에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중등학교를 다닌 사람들 말에 따르면 문법 내용과 어문 규정 내용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다고 한다.

7 전통적으로 남한에서도 옛말 관련 내용은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 왔으나 2009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에서 이를 도입하였으며 결국 2012년, 2014년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하나의 단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본래 옛말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것은 전면적으로 국어 옛말을 다루자는 의도라기보다는 국어 의식 고양이라는 차원에서 ‘국어생활사’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한 의도였다. 국어생활사와 관련된 내용은 『문법 교육』 제10호(2009)에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남한에서는 조사만 단어이고 어미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에서는 둘다 단어로 보지 않고 있지만 우리말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요소로 보아서 특수 처리, 곧 ‘토’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문법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4) 남한 문법 교과서의 단원수와 쪽수

영역	단원	단원수와 백분율		쪽수와 백분율		비고
총설	1. 언어와 국어	1	12.5	40	15.0	
음운	2. 말소리	1	12.5	30	11.3	
단어	3. 단어	1	12.5	34	12.8	
어휘	4. 어휘	1	12.5	32	12.0	
문장	5. 문장	1	12.5	48	18.1	
담화	7. 이야기	1	12.5	30	11.3	
의미	6. 의미	1	12.5	24	9.0	
옛말	부록					36쪽
어문 규정	8. 국어의 규범	1	12.5	28	10.5	
문체	0			0		
합계	8개	8개	100.0	266	100.0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를 비교해 보는 즐거의 틀로 사용하고자 먼저 남한의 문법 교과서 대단원 내용을 간략히 살펴도록 한다.

(4)에서 보다시피 남한 문법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차원으로 균등하게 각 영역을 제시하고 있어서 각 단원별 가중치를 파악하려면 쪽수를 보아야 한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장 단원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곧 다른 단원의 1.5배 정도나 되는 18.1%(48쪽)를 할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단어와 어휘를 각각 12.8%와 12.0% 제시하고 있다. 만약 어휘를 단어의 일부로 본다면 당연히 24.8%로 최다를 차지할 것이다.

음운과 담화 단원을 각각 11.3% 할당하고 있으며, 어문 규정도 10.5%, 의미 부분도 9.0% 제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세 국어 문

법과 국어사 내용을 옛말 차원에서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단원으로는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36쪽이라는 무시 못 할 양으로 제시하고 있다.⁸ 남한에서는 수사법을 다루는 ‘문체’ 부분을 학교 문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5) 북한 ‘국어문법 1~3’ 교과서 내용의 학년별 배열 (단원수/쪽수)⁹

영역	국어문법1	국어문법2	국어문법3	합계			
				단원수와 백분율	쪽수와 백분율		
총설	1/3	1/4	1/2	3	3.8	9	4.6
음운	3/7	5/12	3/8	11	13.9	27	13.8
단어	9/23	13/31	1/5	23	29.1	59	30.1
어휘	2/5	0	2/4	4	5.1	9	4.6
문장	1/4	3/12	8/19	12	15.2	35	17.8
담화	0	0	0	0	0	0	0
의미	1/4	0	1/2	2	2.5	6	3.1
어문 규정	8/20	7/15	4/7	19	24.1	42	21.4
문체	0	0	5/9	5	6.3	9	4.6
합계	25/66 ¹⁰	29/74	25/56	79	100.0	196	100.0

(5)는 북한의 ‘국어문법 1~3’이 보이는 내용을 단원과 쪽 숫자로 제시한 것이다. 단순히 쪽수보다는 단원이 더 가치가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단원수 차원에서 살피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어를 다룬 것이 29.1%로 가장 많다. 여기에 어휘까지 더하면 무려 34.2%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어문 규정으로

8 (4)에 제시된 남한 문법 교과서는 2002년 마지막 국정 교과서이다. 이후 나온 2012년, 2014년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옛말 문법이 당당히 본문 단원 속에 들어가게 된다.

9 이 표에서는 관권 1쪽과 ‘국어문법 1, 2, 3’ 각 책의 차례 1쪽, 2쪽, 1쪽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재의 내용으로 어떤 것을 얼마나 다루었는지 살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10 본래 각 책의 쪽수는 64쪽, 70쪽, 54쪽이다. 그런데 단원이 마치고 시작하는 곳이 중첩되는 데가 많이 있다. 여기에 제시된 숫자는 중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2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문장 15.2%, 음운 13.9%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문체 부분은 ‘국어문법 3’에서만 6.3% 설정하고 있으며, ‘뜻같은말, 반대말, 소리같은말’, ‘성구와 속담, 사전’과 같은 의미 관련 부분은 2.5% 설정하고 있다.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 부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위 총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 책의 제1단원에서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국어문법 1~3’ 책의 학년별 배열 특징으로는 단어 단원이 1, 2학년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에 비해 문장은 주로 2, 3학년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비교된다. 또한 어문 규정 내용이 1, 2학년에서 많이 배열되어 있고, 문체는 3학년에서만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북한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단어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29.1%) 문장과 음운은 그 반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어문 규정을 단어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으며, 약간이나마 수사적 기법을 취급하는 ‘문체’를 3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각 책마다 처음 나오는 총설 부분에서는 김일성 교시를 필두로 하여 서술되고 있다.

(6) 중국 ‘조선어문 문법’ 교과서 내용 (단원수와 쪽수)

영역	소단원(절) 내용	단원수와 백분율		쪽수와 백분율	
총설	<제1장> 조선어의 기능과 특성	1	4.2	4	1.4
음운	<제2장> 제1절 어음의 분류 제2절 음절 제3절 어음의 변화	3	12.5	29	10.2
단어	<제3장> 제1절 품사의 분류 제2절 체언제 3절 용언 제4절 수식언 제5절 독립언 <제4장> 제1절 토의 개념과 그 분류 제2 절 체언토들의 의미와 쓰임 제3절 용언 토들의 의미와 쓰임 <제6장> 제1절 단어와 그 구성	9	37.5	121	42.5
어휘	<제6장> 제3절 어휘의 관계 제4절 어휘의 양상	2	8.3	20	7.0

문장	<제5장> 제1절 문장과 그 표식 제2절 단어결합 제3절 문장성분 제4절 문장의 분류	4	16.7	48	16.8
담화	0	0	0	0	
의미	<제6장> 제2절 단어의 의미와 그 관계	1	4.2	12	4.2
어문규정	0	0	0	0	
문체	<제7장> 제1절 문체의 이해 제2절 문체론적수법 제3절 수사법의 실현 제4절 문체의 류형	4	16.7	51	17.9
합계		24	100	285 ¹¹	100

(6)은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즉 ‘조선어문 문법’의 내용을 소단원별로 단원수와 쪽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표이다. (5)에 대한 해석에서처럼 여기서도 단원을 기준으로 살피기로 한다.

첫째, 중국은 북한 것에 비해서 장과 절이 위계화 되어서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먼저 눈에 띈다. 전체 7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24개의 절로 되어 있다.

둘째, 그런데 ‘제6장 어휘’ 부분에서 하위로 ‘제1절 단어와 그 구성, 제2절 단어의 의미와 그 관계, 제3절 어휘의 관계, 제4절 어휘의 양상’을 설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1절은 단어 형성론 내용이고, 제2절은 의미론 내용이며, 제3절과 제4절은 어휘론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필자는 (6)에서처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¹²

셋째, 중국조선족 문법 교과서에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단원수로 37.5%), 어휘까지 합하면 45.8%나 다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장은 단원수로 볼 때 16.7%밖에 다루고 있지 않다.

넷째, ‘문체’를 16.7% 다루고 있어서 북한(6.3%)보다 훨씬 많이 다

11 본래 284쪽이지만 절 단원에 있어서, ‘제2절 단어의 의미와 그 관계’와 ‘제3절 어휘의 체계’가 겹치기 때문에 동일한 페이지가 2회로 계산되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전체 285쪽으로 나왔다.

12 이렇게 배열해야 남북한과 비교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 최소한 문법 교과서 차원에서만 볼 때 어문 규정과 옛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를 다른 단원도 북한에서처럼 없다.

지금까지 필자는 남한과 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를 단원과 쪽 차원에서 그 숫자와 백분율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 (7)과 같다. (4)~(6) 도표를 통해서는 남한은 쪽수, 북한과 중국은 단원수를 가지고 논의하여 보았다. 사실 쪽수 차원에서 논급하여도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쪽수와 백분율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한다.

(7)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내용 (단원과 쪽)

영역	남한				북한				중국조선족			
	단원 수	%	쪽수	%	단원 수	%	쪽수	%	단원 수	%	쪽수	%
총설	1	12.5	40	15.0	3	3.8	9	4.6	1	4.2	4	1.4
음운	1	12.5	30	11.3	11	12.9	27	13.8	3	12.5	29	10.2
단어	1	12.5	34	12.8	23	29.1	59	30.1	9	37.5	121	42.5
어휘	1	12.5	32	12.0	4	5.1	9	4.6	2	8.3	20	7.0
문장	1	12.5	48	18.1	12	15.2	35	17.8	4	16.7	48	16.8
담화	1	12.5	30	11.3	0	0	0	0	0	0	0	0
의미	1	12.5	24	9.0	2	2.5	6	3.1	1	4.2	12	4.2
옛말	부록				0	0	0	0	0	0	0	0
어문 규정	1	12.5	28	10.5	19	24.1	42	21.4	0	0	0	0
문체	0	12.5	0		5	6.3	9	4.6	4	16.7	51	17.9
합계	8	100	266	100	79	100	196	100	24	100	285	100

첫째, 남한에서는 문장 부분에 가장 큰 강조를 두며(18.1%), 북한과 중국에서는 단어를 무척 강조하고 있다(30.1%와 42.5%). 어휘가 단어의 일부라는 점에서, 즉 단어와 어휘 단원의 쪽수 백분율을 더해 보면

단어 강조는 더욱 커진다. 남한이 24.8%임에 비해서 북한은 34.7%, 중국은 49.5%나 된다. 남한에서 단어와 어휘를 비슷한 정도로 강조하는 것도 특징적이다(12.8%와 12.0%).

둘째, 남한에서는 문장보다 큰 단위인 담화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11.3%), 북한과 중국은 전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북한과 중국은 ‘문체’라 하여 수사법을 다루는 내용을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중학 3학년 때 4.6% 정도 설정하고 있고, 중국은 17.9%나 설정하고 있어서 서로 대조가 된다. 남한은 ‘문체’를 주로 문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셋째, (7)에서 보면 ‘옛말’ 영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남북한과 중국 모두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남한 문법 교과서에서는 36쪽이나 되는 많은 분량으로 부록에 제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후 ‘독서와 문법’(2012, 2014) 교과서에서 당당히 단원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여하튼 여기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옛말 단원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¹³

넷째, 어문 규정을 문법 교과서에서 다룰지 여부는 문법 과목이 다른 과목, 예컨대 독서, 작문, 화법 등과 연계되어 교수 학습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광의의 국어 과목에 이 모든 하위 영역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볼 때 어문 규정을 문법 교과서에서 다룬다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는 생각이 듦다. 북한에서는 실용성을 무척 강조하기 때문인지 어문 규정을 21.4%나 설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단원으로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데, 조선어 과목의 다른 데서 교수 학습된다고 생각된다. 중국조선족에서는 ‘조선말규범집’(2007)을 발간하여 교수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절대적 언어 형성관 입장에서 소위 주체 언어 이론을 준수하고 있다. (7)의 총설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13 사실 전통적으로 문법 교과서에서는 옛말 및 국어사 부분은 다루어져 오지 않았다. 대신에 국어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문법 교과서와 국어 교과서에 옛말과 국어사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이관규(2016-7)에서 자세히 논급한 바 있다.

수 있다.¹⁴ 남한과 중국에서는 국어와 민족의 관계를 일체관 입장에서 언급하거나 언어 도구관 차원에서 제시할 뿐이다.

IV.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와 문법 내용

1.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

흔히들 문법 과목을 지식 과목이라고 말하지만 문법 교과서도 교과서인 이상 단순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서의 일반적인 사항을 담아야 한다. 교과서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최미숙 외, 2016: 73–76).

(8) 남한 문법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단원 4. 어휘

단원의 길잡이-단원 학습 목표-단원을 배우기 전에

01 어휘의 체계/ 학습목표- 1. 어휘의 체계/ 탐구1,2 ... -가꾸기 1~3

02 어휘의 양상/ 학습목표- 1. 방언/ 탐구1,2,(3) ... – 가꾸기 1~4

단원의 마무리

(8)은 남한 문법 교과서의 어휘 단원을 구성 체제 차원에서 보인 것이다. ‘단원의 길잡이-단원 학습 목표-단원을 배우기 전에’ 부분이 도입 단계이고, ‘01 어휘의 체계’와 ‘02 어휘의 양상’ 부분이 전개 단계이며, ‘단원의 마무리’ 부분이 정리 단계이다. 이렇게 남한의 문법 교과서는 일정한 단원 구성 체제를 준수하고 있다.

(9) 중국 문법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제6장 어휘¹⁵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급을 앞 (2)에서 한 바 있다.

- 제1절 단어와 그 구성
- 제2절 단어의 의미와 그 관계
- 제3절 어휘의 관계
- 제4절 어휘의 양상
- 련습문제

그런데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는 그런 교과서의 일반적인 단원 구성 체제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 (9)는 역시 어휘를 다루는 단원의 구성 체제를 보인 것인데, 제1절부터 제4절까지 단순 설명문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들 네 개 절을 포함하여 마지막에 ‘련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중국조선족 문법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설명–연습’인 셈이다.

- (10) 북한 문법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 ㄱ. 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 설명-[련습]
 - 6. 문화어어휘와 사투리어휘 / 설명-[련습]
 - 련습

- <북한, 국어문법 1>
- ㄴ.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품속에서 꽃 펴난 우리 말 문화어
 - 2. 단어와 뜻빛갈 / 설명-[련습]
 - 3. 성구와 속담 / 설명-[련습]
 - 4. 문화어사전을 보는 방법 / 설명-[련습]
 - 련습

<북한, 국어문법 3>

단순 설명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10)은 북한 문법 교과서의 어휘를 다룬 단원들을 그 구성 방법과 함께 제시해 둔 것이다. (10 ㄱ, ㄴ) 모두 해당 주제를 설명하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문법 교과서는 몇 개의 소단원을 설명한 다음에 모두 묶어서 ‘련습문제’로 제시했음에 비하여, 북한 문법 교과

15 전술한바 (9)는 중국 문법 교과서의 어휘 단원 내용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제1절과 제2절은 어휘 내용이 아니고 단어 부분으로 옮겨져야 한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그대로 제시해 둔 것일 뿐이다.

서에서는 각 단원마다 ‘설명-연습’ 구성을 보이고, 여러 개 소단원을 모두 마친 후에 이를 전체 단원들을 묶어서 다시 한 번 ‘연습’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요컨대 남한의 문법 교과서는 ‘도입-전개-정리’라고 하는 교과서의 일반 구성 체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설명-연습’의 단순 구성 체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혹시 문법 과목은 지식 과목이니까, 굳이 교과서의 일반 구성 체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교수 학습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정한 목표 제시에 이은 내용 전개, 방법, 평가라는 일반적인 교수 학습의 원리를 준수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2.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문법 내용: ‘토’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는 다른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차이 나는 점도 있다. 그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조사와 어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조사는 품사로 인정하고 어미는 인정하지 않는 소위 절충식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과 중국조선족에서는 둘 다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소위 ‘토’로 보는 종합식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11) 토의 개념과 종류

ㄱ. 단어의 문법적뜻을 나타내는 형태부를 토라고 한다.

<가>나 <의>와 같이 체언에만 붙고 용언에는 직접 붙지 않는 토를 체언토라고 부르며 <면서>나 <ㄹ수록>과 같이 용언에만 붙고 체언에는 직접 붙지 않는 토를 용언토라고 부른다.

체언토에는 격토, 도움토, 복수토가 속하고 용언토에는 몇음토, 이음토, 규정토, 상황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가 속한다.¹⁶

<북한, 국어문법1: 30>

ㄴ. 토는 주로 어떤 품사의 어간에 직접 붙는가에 따라 체언토와 용언토로 나뉜다.

주로 체언의 어간에 직접 붙는 토를 체언토라 한다. 체언토에는 주로 격토, 도움토, 복수토, 체언전성토 “이”가 있다.

주로 용언의 어간에 주로 붙는 토를 용언토라고 한다. 용언토에는 종결토, 접속토, 규정토, 수식토, 시침토, 존칭토, 용언전성토 “-ㅁ(음), -기”가 있다.

<중국, 조선어문 문법: 62>

(11)에서 보다시피 북한과 중국에서는 체언토와 용언토라 하여 문법적 뜻을 나타내는 것을 토라고 명명하고 있다. 체언토는 남한의 조사에 해당하며, 용언토란 남한의 어미에 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토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허사가 주로 해당하며, 비록 용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것들을 남한 것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 (12)와 같다.

(12)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조사와 어미, 혹은 토의 용어 및 종류 비교

북한		중국조선족	남한	
체언토	격토	체언토	격조사	
	도움토		보조사	
	(구격토)		접속 조사	
	복수토			복수접미사
	바꿈토	체언전성토		서술격 조사
용언토	맺음토	용언토	종결 어미	
	이음토		연결 어미	
	규정토		관형사형 전성 어미	
	상황토		부사형 전성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16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꿈토’라 하여 ‘국어문법2’(45쪽)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바꿈토는 체언을 용언처럼, 용언을 체언처럼 바꿔 쓰게 해주는 토이다.

바꿈토에는 체언에 용언토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와 용언에 체언토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가 있다.”

존경토	존칭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칭토		시제 선어말 어미
	용언전성토		명사형 전성 어미
	접미사		접미사

(12)는 북한의 토 용어 및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과 남한의 것을 비교해 본 표이다. 조사와 어미를 모두 ‘토’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 명칭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북한의 ‘맺음토’는 중국에서 ‘종결토’, ‘이음토’는 ‘접속토’, ‘상황토’는 ‘수식토’, ‘존경토’는 ‘존칭토’, ‘시간토’는 ‘시칭토’ 등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 같은 문법 범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북한의 ‘상토’는 중국에서 ‘접미사’라고 부르고 있어 명칭 차이를 보인다. 토와 접미사라는 분명 다른 문법 범주 명칭이다.

(13) 북한과 중국조선족의 피동, 사동 접미사에 대한 문법 범주 인식

- ㄱ. ○ 교원이 학생들에게 새로 출판된 혁명소설을 읽힌다.
- 새로 출판된 혁명소설이 학생들속에서 널리 읽히운다.
상토란 <<읽힌다>>의 <<히>>나 <<읽히운다>>의 <<히우>>와 같 이 동사에 붙어서 행동을 남에게시킨다든가 남에게서 입는다든가 하는 뜻을 나타내는 토를 말한다.
- 상토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히우>>, <<기우>>, <<리우>>, <<으키>>, <<이키>>가 있다.

<북한, 국어문법2: 44>

- ㄴ. 피동문에는 능동사에 피동의 접미사 “이, 기, 히, 리” 등이 붙어서 피동사가 파생된다.

능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경우에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붙이면 된다.

<중국, 조선어문: 문법: 195-196>

(13)에서 보면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접미사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토라고 부르고 있다. 접미사라는 명칭은

남한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법 범주 명칭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 기, 히, 리’를 설정하고 또 사동 접미사로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설정하고 있다(13-). 이것은 남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실 저 앞 3장의 (3) 도표에서 보았듯이 남한과 중국은 문법 교과서를 단원 배열하는 방식 등에서 유사점이 많이 있었다. 장과 절로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은 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교과서 제작을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조사와 어미를 토로 보는 차원에서는 북한과 같지만, 서로 다른 문법 범주인 접미사를 설정한 것은 남한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중국조선족은 학문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북한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법 교과서 단원 배열 방식이나 피동, 사동 접미사에 대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과 차이 나는 것을 볼 때 중국조선족이 무조건 북한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V. 맷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를 언어 사상적인 측면과 단원 구성 체제와 문법 내용 차원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특히 조사와 어미와 같은 허사에 대하여 세 곳에서 문법 범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남한은 언어 도구관과 일체관, 북한은 언어 일체관과 형성관, 중국은 언어 도구관, 일체관, 형성관 성격이 과목이나 문법 교과서에 주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곳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어와 한민족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는 언어 일체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 및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서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하겠다.

문법 교과서의 단원 배열 양상을 볼 때, 남한과 중국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나 북한은 단순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단원 개별적으로 볼 때 남한은 ‘도입–전개–정리’라는 기본적인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를 지니고 있음에 비해서 북한과 중국조선족은 단순히 ‘설명–연습’의 구성 체제를 보이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여러 영역들 가운데 문장 단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조선족은 단어 단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문법 연구의 양상이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어문 규정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문법 교과서에서 이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수사법을 다루는 ‘문체’를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남한에서는 다루지 않는 차이도 보인다. ‘문체’를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언어 표현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법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조사와 어미를 북한과 중국에서 각각 체언토와 용언토라고 하여 ‘토’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남한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보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조선족은 모두 허사로 다루고 있다. 특히나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인 조사와 어미를 함께 다루고 특히 강조하면서 취급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동과 사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남한과 중국조선족은 접미사로 보고 있고, 북한에서는 역시 ‘토’로 보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관이나 단원 배열 방식, 단원 구성 체제 및 문법 내용(‘토’)면에서 중간자적 존재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한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남한, 북한, 중국조선족이 어느 쪽으로 국어정책이나 국어교육정책을 지향해야 하는지 암시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2016.07.31. 투고되었으며, 2016.08.08. 심사가 시작되어 2016.09.0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근(2006), 「통일언어철학의 탐색방향」,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1–21.
-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제2판)』, 평양: 사회과학원인쇄공장.
-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 연구』, 고려대 출판부.
- 김민수(2008), 『현대 어문 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일성(196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1968, 『문화어학습』 2, 1~7, 전재).
-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1968, 『문화어학습』 3, 1~9, 전재).
- 김해성(2015), 「한국과 연변의 문법 교파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료녕성교육청·길림성교육청·흑룡강성교육청(2016), 『조선족고급중학교 조선어 문과정표준』,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 류은종·김광수(2008, 2014), 『조선족고급중학교교파서 조선어문 문법』,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 연변교육출판사(2016), 『중국, 조선, 한국의 문법에서의 차이점 비교』,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 이관규(1999), 「북한 학교 문법의 체계와 내용」, 『화법연구』 1, 한국화법학회, 371–438.
- 이관규(2016-), 「문법 과목의 명칭과 종류」, 『문법 교육』 26, 한국문법교육학회, 1–27.
- 이관규(2016-), 「남북한 어문 정책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발표집』, 97–117.
- 이주행(2004), 「남한과 북한의 규범 문법 비교 연구」, 『국어교육』 113, 한국어 교육학회, 589–627.
- 정병철(2011), 「수사학적 문법의 인지적 토대」, 『청립어문교육』 44, 청립어문 교육학회, 552–581.
-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찬(2007), 『조선말규범집』,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최미숙·원진숙·정혜승·김봉순·이경화·전은주·정현선·주세형(2016), 『국어 교육의 이해(개정3판)』, 사회평론.

최준영·서재길·류병설(1996, 2001), 『고등중학교 국어문법 1~3』, 평양: 교육
도서출판사.

홍종선(1999), 「남·북한 국어 문법의 통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창간호, 3-33.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초록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이관규

남한은 언어 도구관과 일체관, 북한은 언어 일체관과 형성관, 중국 조선족은 언어 도구관, 일체관, 형성관 성격이 과목이나 문법 교과서에 드러나 있다. 남북한, 중국에서는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같이 보는 일체관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의 언어관이나 단원 배열 방식, 단원 구성 체제 및 문법 내용('토')면에서 중간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법 교과서의 단원 배열 양상을 볼 때, 남한과 중국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은 단순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단원 개별적으로 볼 때 남한은 '도입-전개-정리'라는 기본적인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를 지니고 있음에 비해서 북한과 중국은 단순히 '설명-연습'의 구성 체제를 보이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문장 단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은 단어 단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문법 교과서에서 어문 규정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기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수사법을 다루는 '문체'를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남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문법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조사와 어미를 북한과 중국에서 각각 체언토와 용언토라 하여 '토'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교착어인 한국어 특성인 조사와 어미를 함께 다루고 강조하고 있다. 피동과 사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남한과 중국에서는 접미사로 보고 있고, 북한에서는 역시 '토'로 보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핵심어 남북한, 중국조선족, 언어 일체관, 단원 배열, 문장, 단어, 토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Grammar Texts in North-South Korea & China

Lee Kwankyu

South Korea (SK), North Korea (NK), and ethnic Koreans in China (KC) commonly have language unity in grammar subject and textbooks. KC represents a neutral view in North Korea's language unit development method, unit construction system, and grammar contents.

Unit arrangement methods of grammar textbook are systemic in SK and KC while those of NK are composed of a simple enumeration. Observing units individually, SK has a basic unit construction system in textbooks such as 'introduction–development–arrangement'. Meanwhile, NK and KC show the difference from SK by only presenting 'explanation–exercise' system.

SK emphasizes the sentence unit the most; however, NK and KC put significance on the word unit. In addition, SK and NK stress language norms in grammar textbooks, but KC does not mention the subject. NK and KC discuss a 'literary style' in grammar textbooks while SK's textbooks lack the information.

With the grammar content's aspects, NK and KC have respectively named the grammatical particle and ending as 'Cheeonto'(체언토) and 'Yongeonto'(용언토). The grammatical particle and ending show their non–substantive characteristic. SK and KC view the passive and causative suffix as suffix, but NK differently account them as 'tto'(토).

KEYWORDS South Korea (SK), North Korea (NK), ethnic Koreans in China (KC), language unity, unit development, sentence, word, tto(토)